

‘本社’는 가고 부설연구소는 오고



대덕밸리 벤처업계의 물갈이가 한창이다. 3~4년 업력을 갖춘 기업의 본사가 대덕밸리를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타지역 기업들의 연구소를 대덕밸리에 두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02년부터 최근까지 대덕밸리로 이전한 벤처기업은 36개. '02년 총 25개 벤처기업이 대덕밸리로 전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모두 11개 기업이 대덕밸리에 새 둠지를 틀었다. 이는 진출기업의 숫자보다 4배가 넘는 수치다.

전입기업이 진출기업보다 수적으로 앞서지만 기업의 핵심인 '본사 이전'은 감소했다. 지난해 전입기업 현황 조사결과 11개 기업중 단 3개 기업만이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02년 25개 전입기업중 17개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 것에 비하면 무려 14개 기업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기업 본사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나 영업지사 형태로의 대덕

밸리 전입현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 및 이전한 기업이 '02년 5개, '03년 6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지사 설립 형태로 전입한 기업은 '02년 3개, 지난해 2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떠난' 기업들은 정반대다. '01년 이래 20여 개 진출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지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연구소 이전은 2~3개에 불과한 정도다.

지난 '01년 7개의 기업이 대덕밸리를 이탈한데 이어 '02년 4개, '03년 5개 등 어느 정도 대덕밸리에서 성장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차원에서 타지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기업유치조례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덕테크노밸리 등의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중견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전입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 위한 ‘컴퓨터 공동구매’ 실시



대덕넷(대표 이석봉)은 컴퓨터 제조업체 아이티엔씨21(대표 유병삼)과 제휴를 맺고 '대덕밸리 초특가 컴퓨터 공동구매'를 실시한다.

대덕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될 이번 공동구매는 삼보 17인치 완전평면 모니터, CPU(인텔 2.4Ghz), RAM(DDR 256M), 하드디스크(무소음 40G), 삼성 52배속 CD-ROM, PC케이스, 광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등 풀세트가 49만 9000원에 판매된다. PC는 사양에 따라 최저 39만9000원에서 73만9000원까지 다양한 상품군이 구비되어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맞춤PC 제작도 가능하다.

또한 공동구매를 통해 삼보정보통신의 TGIC 완전평면모니터를 각각 14만9000원(17인치), 21만5000원(19인치)에 살 수 있으며 오리온정보통신의 LCD모니터도 각각 34만9000원(15인치), 46만5000원(17인치)에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XP 홈 에디션이 12만2000원에 판매된다.

김춘성 아이티엔씨21 이사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탓에 유통마진이 거의 없어 고품질 최저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대덕넷과의 협력으로 대덕밸리 이웃들과 지역사회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티엔씨21은 인터넷 경매쇼핑몰 옥션과 인터파크를 통해 지난해 10만대 이상의 컴퓨터 매출을 올린바 있다.